

생명평화학교 기금 마련 전시

대구 보현암 주지이자 화가인 선진 스님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불교회관 1층에서 '제2회 앞산 살림을 위한 진언행자 음 부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대구 앞산 관동터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앞산 달빛 고운 마을연대'와 '앞산 생명평화학교'를 건립하는데 기금을 모내기 위해 열었다. 음마니반메를 10만자 서사 원력을 세우고 14년째 수행 중인 선진 스님은 이날 전시에서 21가지 부채를 선보였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부산 반야원 환우 돕기 바자회

부산 범어사 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이 7월 18일 환우 돕기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에는 반야원 신도들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부산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지원하는 환우들에게 전액 전달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삼존좌상 등 4점
보물 지정 예고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금강요집경> <주범광경> <불조삼경>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대웅전의 주불로, 130cm 높이의 본존상과 좌·우 협시보살상으로 이뤄져 있다. 조선 현종 2년(1661) 조각승 회장 스님이 제작했으며 정화한 존상 명칭 등이 남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현재 범어사상보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금강요집경> 등의 인쇄본은 보존상태가 좋으며 <주범광경>은 조선 전기에, <주범광경>은 고려 말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성미 기자**

현존 最古 천년전 '보협인경' 발견

안동 보광사 13세기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 유물서 확인

1007년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협인다라니경' 인쇄본과 13세기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안동 보광사주지 해명에서 발견됐다. 보협인다라니경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6호)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인쇄본이며,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의 공백을 메워줄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범서총지집' '범자다라니' 등의 인쇄본과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저고리 등 고려시대 인쇄·의복사를 밝혀줄 문화재들이 대거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산하 문화유산 발굴조사단(단장 범해)은 문화재청(청장 유홍준)과 함께 추진 중인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보광사를 조사하던 중 지난 5월 29일, 목조관음보살상의 실측을 위해 불상을 옮기다 복장 유물이 흘러내린 것을 확인하게 됐다.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문화재조사팀 박상준 팀장은 "복장유물의 경우 인위적인 개봉이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경우는 유물이 흘러내림으로써 복장으로서의 상징성이 상실됐고, 추가적인



안동 보광사에 모셔져 있는 13세기 목조관음보살좌상(오른쪽)과 복장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보협인다라니경 인쇄본(왼쪽 위),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고려시대 인쇄본들을 범해 스님(문화유산발굴조사단장)과 수경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jwpark@buddhapia.com

훼손이 우려돼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로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이하 보협인다라니경)'을 비롯해 고려시대 인쇄본과 저고리 1점 등 총 10종 193점이 발견됐다. 특히 이번 발견된 고려시대 인쇄본들은 인쇄 후 잘라서 연결해 책으로 만들기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

가 높은 자료다. 보협인다라니경은 크기 32×45cm이며 총 23장이 확인됐다. 고려 목종 10년(1007년) 총지사(總持寺)에서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병패 문화재전문위원(고문서 기록분야)은 "보협인다라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변상도 역시 한국 판화미술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랜 작품"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복장에 함께 안치됐던 저고리

에 대해 박윤미 문화재전문위원(복식사)은 "저고리 소재는 비단인 견사(絹紗)이고 네 울이 얇혀 직조된 라(羅)로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다"며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복장일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광전의 주불로 모셔져 있던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그간 고려시대 양식으로 추정돼 오다 이번 조사로 13세기 작품임이 확인됐다. 두께가 발린 개금으로 자세한 형태를 알 수 없던 보살좌상의 보관(寶冠)을 X-ray 촬영한 결과, 고려시대의 정밀한 공예 기법이 드러난 것이다. 개금은 약 10여년 전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범해 스님은 "이번 조사는 13세기 불상과 목판인쇄물 연구에 큰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앙의 대상인 불상과 복장유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종단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물은 현재 1차 조사와 응급조치를 마치고 불교중앙박물관 수장으로 옮겨졌으며,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앞으로 일련의 조사를 완료한 후 내년 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영남지역 '범패' 음반 출시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천사삼층석탑 해체 복원 보고서 발간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영남지역의 범패 음악을 담은 '영남범패' CD와 경천사삼층석탑 해체 복원 보고서인 <경천사삼층석탑>을 펴냈다.

'영남범패' 음반(1종 5장)에는 1969년 11월 부산의 국형사에서 녹음된 범패 음악이 수록돼 있다. 녹음은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이었던 홍윤식 명예교수(동국대)가 맡았으며, 소리의 주인공은 국형사 주지 어장(魚丈) 김용운(?-1973) 스님이다.

용운 스님은 1972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범음·범패' 종목이 지정되어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쉽게도 이듬해 1월에 별반했다. 이후 '범음·범패'는 부산시 무형문화

재에서 해제됐다. 음반에는 영산재(靈山齋) 과정에서 불리는 범패가 수록되어 있으며, 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경천사삼층석탑(국보 86호)의 해체복원 과정을 담은 조사보고서 <경천사삼층석탑>에는 10여 년 간 진행된 석탑의 정비보존처리 및 복원 과정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돼 있다. 1권에는 해체에서 복원까지의 과정을, 2권에는 관련 연구논문, 3권에는 부채별 상세자료를 담았다.

고려시대 경기도 개풍 경천사에 세워졌던 경천사삼층석탑은 현재 용산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전시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노컷뉴스 역삼청소년수련관 기사 허위"

파라미터청소년협, 정정보도 요구

사단법인 파라미터청소년협회(이사장 도후, 이하 파라미터는 "지난 7월 17일자 기독교방송 노컷뉴스에 보도된 '청소년수련관에 동원된 정체불명 폭력배' 제하의 기사가 사실 보도 원칙은 물론 최소한 현장 확인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로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법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파라미터는 "노컷뉴스가 기사에서 호도한 것처럼 수련관 인신수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심각한

반발이 있지 않았으며, 기사가 인신수괴 당시(새벽 5시 30분)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가식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라미터는 "기독교방송의 사과와 정정보도, 취재기자 문책 등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한편 역삼청소년수련관은 18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양주 석굴암 천일기도 입제대법회

경기도 양주 오봉산 석굴암(주지 도일)은 7월 29일 오전 10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제3차 천일기도 입제대법회를 봉행한다. 주지 도일 스님은 이날부터 2010년 4월 24일까지 100일간 일체 산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용맹 기도정진할 예정이다. (031) 826-3573 **김원우 기자**

"대학생 불자들 제주로 옵서예"

'한국불교 1600년 대회'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용석)는 8월 9-12일 제주도 약천사, 관음사, 범파사 등 제주지역 일대에서 '제26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개최한다. '언제 어디서나 주안 되는 무한능력파티!' 당신이 범우(法友)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0개 대학에서 500여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8월 8일 오후 6시 약천사에서 입제식이 봉행되며, 9일 오후 7시에는 제주 4·3사건 주동자인 김봉현씨의 '제주불교와 문화' 강의와 범등별 시간이 진행된다. 10일에는 어리목으로 이동해 '범우와 함께하는 한라산 산행'이 마련되며, 11일에는 탐방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불교 문화체험마당 및 대학생 문화제 '유니버시티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생태 체험 학습, 제주 방언 배우기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조용석 회장은 "전국의 대학생 범우들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만끽함으로써 지역의 불교를 이해하고, 대학생 포교를 활성화시키는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I Love Buddha / 부처님의 범비

정용운(www.zentoon.com)

친환경청소·물결레 청소·구석청소·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엔진 **마미로봇**

Mamirobot KVM(주)경민에카르토닉스 www.mamirobot.co.kr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문의 / 최성선 011-253-3747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 단 한 시간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운명서
- 언제나 30초 안에 모든 일의 결과 예측
- 43만 가지의 인간사 즉시에 결과 예측
- 한눈에 펼쳐지는 우주자연의 비밀
- 이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저자의 이론과 학문 완전 공개
- 역대 대통령선거 1년 전에 100% 결과 예측
- 역대 대형사건·사고의 운명적 해석과 증명

대한민국 운명록

자신의 운명수와 공합·전화변화와 공합·자동차번호와 공합·날짜로 보는 운명·부동산의 운명 등등 운명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누구나 볼 수 있게 <단시표> 전격 수록!

총 1,152개로 세분한 단시표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

해광스님의 저서 / 신국판 양장본 / 512쪽 / 값 25,000원 *서점에 있습니다.

저자 연락처 i4984@hanmail.net 다음카페 <금강산원 해광스님> T. 032-665-8472